

제152차 시흥경제인오찬강연회 성료

시흥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3일(목) 11시, 시흥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한양대학교 김광석 교수를 초청하여 “2025 경제전망 : 트럼프 2.0 시대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52차 시흥경제인오찬강연회에 지역 기관장, 기업 CEO 및 임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하였다.

김광석 교수는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대응책을 이야기하기 전 어떤 경제 국면에 놓여있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그는 “지금 경제는 지독하게 어렵지만 경제위기는 아니다. 평년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이어지는 '저성장 고착화'”라고 말했다.

김광석 교수는 세계 각국에 분산된 '글로벌 밸류체인'을 미국 내의 '도메스틱 밸류체인'으로 완성하겠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가 1기에 이어 2기에도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결정했는데, 밸류체인을 옮기고자 하는 과제에 있어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안 하게 해줄 테니 미국 내에서 제조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와 관련해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이 있다”면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수출을 늘리고,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석 교수는 배면뛰기의 창시자인 높이뛰기 선수 딕 포스베리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강연을 마쳤다.

그는 “모든 선수에게 똑같은 환경 변화가 찾아왔는데, 포스베리만 달라진 환경에 걸맞은 높이뛰기를 시도했다. 어떤 환경 변화가 내 앞에 찾아왔는지를 직시하고, 달라진 환경에

나는 어떤 높이뛰기를 할까를 고민해보고 각자 최고신기록을, 세계신기록을 경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한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쳤다.

다음 강연회는 2025년 9월 4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다. 끝.

